

항생제 남용은 순간! 내성은 평생입니다! 함께 예방해요.

- 질병관리청,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11.18.~24)」 기념 캠페인 운영
- 국민과 의료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항생제 내성 인식 확산 슬로건 개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매년 11. 18.~11. 24.)」을 맞아,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부터 항생제 내성을 인류가 직면한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지정하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대중의 인식 제고를 강조하는 글로벌 캠페인*의 운영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 글로벌 캠페인 메시지: 우리의 오늘을 지키고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행동하라(Act now, preserve the future)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반복적인 항생제 노출로 약효에 적응하면서, 기존 치료제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 질병의 치료 실패와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항생제 내성은 ‘예방이 가능한 위협’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적정 사용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이번 인식주년을 기념하여,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국민과 의료인이 함께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는 슬로건을 제작하여, 국민에게는 일상 속 올바른 항생제 사용 실천을, 의료인에게는 책임있는 처방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공동 대응’의 실천 의지를 전달한다.

2025년 대상별 홍보 슬로건

국민

- ▶ 항생제 남용은 순간! 내성은 평생입니다!
- ▶ 좋은 줄 알고 자주 먹은 항생제, 의사도 약도 당신을 못 지킵니다.

(의미) 항생제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복용하는 실천 문화를 유도

의료인

- ▶ 항생제 바로 알림, 여러분이 움직이면 국민이 바뀝니다.
- ▶ 국민은 당신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성을 막습니다.

(의미) 처방시 올바른 복용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고 불필요한 경우 처방하지 않는 이유를 안내하는 등 국민과의 신뢰 기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

또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 수칙 등을 담은 각종 홍보물을 대상별로 배포한다.

국민에게는 항생제 올바른 사용 수칙을 담은 카드뉴스를 질병관리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고, 청소년 대상 가정통신문을 교육부 및 보건교사회 공동으로 배포한다.

또한, 여러 형태의 홍보물*(리플렛, 포스터 등)을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한다.

* (게재장소)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카드뉴스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정책정보 > 항생제 내성 > 홍보물 및 보도자료

11월 28일(금)에는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포럼’을 개최한다.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항생제 내성균 감염 극복 경험을 주제로 한 수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 및 소감 발표도 이루어진다. 이어 항생제 적정사용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도 공유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내성은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공동 과제이며, 이제는 아는 것에서 벗어나 실천에 나서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만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1. 항생제 예방관리 수칙(리플렛)
2. 청소년 대상 항생제 내성 카드뉴스(초등학생용)

담당 부서	의료안전예방국 항생제내성관리과	책임자	과 장	신나리 (043-719-7530)
		담당자	연구관	서승희 (043-719-7531)
		담당자	주무관	김정민 (043-719-7538)



25.11.18. 질병관리청

항생제 사용!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항생제 내성 예방수칙>

- ✓ 의사에게 처방받은 항생제만, 복용하기
- ✓ 타인이 처방받은 항생제는 복용하지 않기
- ✓ 항생제는 처방받은 방법과 기간을 지켜 복용하기
- ✓ 항생제 복용 중단은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기
- ✓ 손씻기, 예방접종으로 감염 예방하기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

✓ **항생제**
세균 감염질환을 치료하고,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으로 감기약도 해열제도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올바른 항생제 사용이 왜 중요할까요?

1. 몸 속에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을 포함한 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2. 부적절한 종류의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복용하던 항생제를 임의로 중단하면 항생제 내성 세균이 살아남게 됩니다.
3. 살아남은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증식을 통해 몸속에서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4. 항생제 내성 세균이 사람이나 동물과의 접촉, 오염된 음식과 물 섭취 등으로 전파됩니다.

항생제 내성은 어디서든 발생해요

원인 **발생하는 곳**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 → 사람, 농작물, 동물, 어류

부적절한 항생제 폐기 → 물, 토양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1. 몸 속 세균에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 ✓ 항생제를 복용해도 세균이 죽지 않습니다.
 - ✓ 내성이 생긴 항생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항생제 내성 세균이 더 늘어나면?
 - ✓ 치료 시 선택할 수 있는 항생제가 점점 줄어들고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과 사망이 증가합니다.

항생제 내성, 이렇게 예방해요

1.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여야 해요
 - 손씻기와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사전 예방하기
 - 항생제는 의사에게 처방받은 경우만 복용하기
 - 먹다 남은 항생제나 타인의 항생제 복용하지 않기
2. 항생제가 불필요한 바이러스 감염질환을 기억해요
 - 감기, 콧물
 - 인플루엔자(독감)
 - COVID-19
3. 항생제는 용법에 맞게 복용해야 해요
 - 처방에 따라 용량, 기간, 시간을 지켜 항생제 복용하기
 - 항생제 복용 중단 여부는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기
4. 환경에서의 항생제 내성 발생과 전파를 예방해요
 - 남은 항생제는 약국이나 보건소에 반납하여 폐기하기

